

우리나라 투석요법의 현황

—인산기념 등록사업 1992—

대한신장학회*

김 용 수 · 방 병 기**

서 론

1992년에 만성신부전증 진단하에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인공신장실 전체 현황 및 개인 현황 설문지를 보내어 응답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신대체요법의 현황 및 특성을 보고한다. 전국에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모두 120개로 전년도보다 6개(5%) 증가하였고, 이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대전의 6개 특별시 및 직할시에 71개(59%)로 집중되었다. 혈액투석기는 총 1434대로 전년도의 1358대보다 5% 증가하였다. 혈액투석 환자는 총 5784명, 복막투석 환자는 총 1619명, 전체 투석 환자는 총 7403명으로 전년도의 6252명보다 18% 증가하였으며, 혈액투석 환자대 복막투석 환자의 비율은 78% 대 22%로 전년도와 같았다. 1992년에 발생한 신환자는 혈액투석 2635명, 복막투석 705명, 신이식 765명, 총 4109명으로 전년도의 3813명보다 7% 증가하였다. 혈액투석 신환자의 원인 신질환은 사구체신염(30%), 당뇨병성 신증

(16%), 고혈압성 사구체경화증(14%)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50대(23%), 30대(21%), 40대(19%), 60대(16%) 순으로 50대 이상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혈액투석 환자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 23%, 혈관질환 14%, 감염 12% 순이었다. 주당 혈액투석 횟수는 2회 투석 환자가 56%로 많았고, 3회 투석환자가 32%로 전년도의 20%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투석 환자의 증가, 혈액투석대 복막투석의 비율, 투석 환자의 고령화, 원인 신질환, 사망원인등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당 혈액 투석 횟수가 매우 증가하여 혈액 투석 치료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위원
 방병기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조사책임)
 김용수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박찬현 한양대학병원
 한동철 순천향대학병원
 조원용 고려대학 안암병원
 박정식 울산대학 중앙병원
 김현철 계명대학 동산의료원
 박성광 전북대학병원
 박임수 부산대학병원